

#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The Survey of Actual Condition on Improvement and Point at Issue of  
Currently Book Numbers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조 윤 희(Yoon-Hee Cho)\*

## 초 록

도서기호는 분류기호와 구별되어 도서의 서가 위치를 지정해주는 독자적인 장치로서 문헌의 기본기입요소, 즉 저자, 서명, 출판연 등을 포괄하는 문헌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동서용 9종과 양서용 2종으로 총 11종의 도서기호법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의 대학도서관 11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도서기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도서기호법에 대한 문제점과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고려사항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학도서관의 전문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기호의 중복과 효율적인 장서관리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도서기호 중복 해소와 기존체계와의 일관성 및 서가배열을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과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현행 도서기호체계의 개선방안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행 도서기호법의 표준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Book numbers can be defined as the device for providing a unique self location for each book. They should include main entry which consists of author, title, the date of publication. Now, the university libraries are using eleven different methods on book numbers, in other words, nine eastern methods and two western method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oblems that the present book number system has and some concerns tha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case of the modification of the book number system and change into a new one. This study is based on the survey in that the librarian gave to 110 university libraries throughout the nation. As a result, the survey indicates that the crucial concerns of the participating libraries are ineffective book management and the duplication of book numbers. In addition, the survey indicates that the priorities of the libraries is removing duplicated numbers, adhering to the current system, and keeping the same book arrange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components for the expansion of the book number system and the necessity of standardization of diverse book numbers.

키워드: 도서기호법, 대학도서관, 도서기호체계, 실태조사

Book Numbers, University Library, Book Number System, Survey of Actual conditaion

---

\* Exchange Faculty, University of Northern Iowa, Cedar Falls, IA(cho519@wm.cau.ac.kr)

- 논문접수일자 : 2004년 11월 18일
- 게재확정일자 : 2004년 12월 15일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도서기호는 분류기호와 함께 청구기호를 구성함으로써 동일한 분류기호내에서 문헌을 개별화하여 서가상에 유일한 위치를 지정하여서가 배열을 용이하게 한다. 아울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체 문헌의 이용과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 장서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서기호는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에게 분류기호처럼 연구의 대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도서관 자동화가 급속도로 진척되고 모든 자료를 온라인 목록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관심이 더욱 축소되었다. 특히, 최근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유용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도서관의 소장자료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됨으로서 도서기호에 대한 관심은 점차 소원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원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서가에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이용자의 효율적인 문헌 이용과 도서관의 장서관리 효율성 및 도서관 자료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서기호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표준화된 KO-RMARC 포맷을 이용하여 전국대학도서관 소장자료의 통합목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참여 대학도서관간 공동목록 작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함으로써 개별 도서관은 카피목록의 활용으로 정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분류와 목록업무 측면에서 표준화와 공동 업무분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도서기호는 각 대학도서관마다 다양하게 개별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도서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정보시스템에서 도서기호를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중복체크를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현장에서 도서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이 상대적으로 도서기호의 중요성이나 표준화의 필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을 야기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도서기호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도서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의 적절성과 문제점에 관하여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사서들의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지속적으로 장서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서 현행 도서기호체계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도서기호 중복의 문제와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타도서관과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서기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대학도서관은 장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장서를 소장한 이

후에는 동일한 주제하에 도서기호가 중복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각 문헌의 개별화를 위해 도서기호가 점차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온라인 공동목록 작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기호법 사용 현황과 도서기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사서들의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인식정도와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시 고려사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도서기호법의 정의와 관련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검토와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기호 사용 현황 및 담당사서들의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과 현행 도서기호법의 수정이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식을 연구범위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서기호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기반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서기호의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과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전문사서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소를 파악하여, 현행 도서기호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배경의 문헌적 고찰과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기호법사용 실태와 전문사서들의 인식도는 통계적 기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사용 현황 파악과 담당사서들의 인식

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학도서관의 도서기호 담당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도서기호의 조작적 정의

도서기호는 분류기호와 함께 청구기호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이는 동일한 분류기호하에서 각 문헌을 개별화하여 서가상 배열의 위치를 지시해 주는 도서관장서관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조직 기법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기호법은 박봉석(1947)의 朝鮮十進分類表의 권말에 수록된 性別記號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기호의 본격적인 연구는 대학에 도서관학과 설치된 195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도서기호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었다. 1970년대 초기까지 도서기호는 동일한 분류기호내에서의 문헌을 개별화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의된 도서기호법 사용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정의로서 Barden (1937)은 도서기호는 서가상 도서를 순서있게 배열하기 위하여 각 도서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청구기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Ranganathan(1964)은 동일한 분류기호를 공유하고 있는 문헌들을 각각 개별화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동일한 분류기호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도서들의 상대적인 배열

위치를 지정하는 표시로 정의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정의는 동일한 분류기호내에서 이차적 배열기준으로서 도서기호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는 도서관에서 도서기호 사용의 안정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정의로서 김남석(1988)은 도서기호는 분류번호에 이은 이차적 배열기준으로서 동일한 분류항목 내에서의 각 문헌에 대한 배열 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는 기호법이라고 정의하였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서기호의 정의는 자료조직의 독립적 장치로서 지금까지의 동일한 분류기호내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도서기호가 독립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기 시작하였다.

사공철 외(1996)는 동일한 분류기호를 가진 도서를 개별화하고, 배열과 검색의 편의를 위해 순서를 정할 목적으로 부여하는 기호, 문자나 숫자, 또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기호와 더불어 청구기호를 구성한다. 이는 도서기호를 분류기호와 구별되는 개별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Santija and Comaromi(1992)는 도서기호는 저자, 서명, 언어, 출판연, 형태사항과 같은 문헌 속성의 하나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도서기호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의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 이전의 도서기호 사용의 정착기에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도서기호의 불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도

서관의 장서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되면서 그 필요성이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말까지 도서기호 사용의 안정기에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완전개가제로 서가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문헌의 정확한 배열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용자의 이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체의 장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도서기호 사용의 확장기로서 많은 도서관이 수 백만종에 이르는 장서를 완전개가제로 운영함으로써 점차 기존의 도서기호법으로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확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도서기호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확장된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기호는 분류기호와 구별되어 문헌의 서가 위치를 지정해주는 독자적인 장치로서 문헌의 기본기입요소 즉, 저자, 서명, 출판연 등을 포괄하는 문헌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 2. 2 선행연구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법(1947년)의 권말에 수록된 '姓氏記號表'가 우리나라 도서기호법의 최초이다. 이 후 고재창의 韓國著者記號表(1954년)와 日本著者記號表(1954년)가 발표되었으며, 리재철의 동서저자기호표(1958년, 1970년 개정, 1982년 한글순도서기호법으

로 게재)가 발표되었는데 이 저자기호표는 분석합성형 저자기호표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발표된 다른 저자기호표와 그 구조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 밖에 이춘희의 東書著者記號表(1960년), 장일세의 韓國人著者記號表(1961년, 東洋書著者記號表로 1964년 게재), 정필모의 韓國文獻記號表(1973년)가 사용되고 있다. 연대기호법으로는 리재철의 연대순도서기호법(1983년, 새연대순도서기호법으로 1986년 게재)이 사용되고 있다(사공철 외 1996).

Comaromi(1981)는 Schwartz 저자기호법이나, Cutter 저자기호법이 소개된 1880년대 후반 도서관계 일부분에서 저자기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도서관이 소규모 장서를 소장하고 있어 분류기호와 수입순 기호법으로 어느 정도 개별화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호법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LA(1921)는 도서관에서 도서기호의 생략에 따라 대출과 목록 업무부분의 시간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 서가배열의 측면에서 상당한 시간이 절약되었다. 그러나 이용자가 실제로 원하는 도서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반납된 도서를 서가에 재배열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배열부면에서 절약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가 도서관에서의 도서기호 사용에 관한 완전한 효율성 평가는 아니었지만, 도서관에 도서기호법 사용을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이 후 도서관에서의 저자기호법의 필요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박준식 1991, 재인용).

Bliss(1910)는 도서관에서 도서기호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서가에서 원하는 도서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불확실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다.

Mann(1943)은 도서관에서 도서기호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으로부터 잠재적 이용자를 되돌려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Satija(1992)는 도서관에서 도서기호법의 사용은 동일한 분류기호내에서 손쉽게 도서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고 배열함으로써 대출 반납 및 도서의 재배열을 용이하게 해준다. 아울러 동일 분류기호하의 동일 저자의 모든 저작의 여러 판과 복사본, 관련 주제의 자료, 특정 저자와 관련된 모든 저서를 집중시키며, 논리적으로 도서를 서가상에 배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이병수, 장일세, 정필모, 리재철 등이 우리나라 도서기호법의 개발과 사용방법, 배열, 표기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후 김남석(1979), 리재철(1985), 정희정(1986), 이창수(1986), 김치우(1987), 서울시도서관연구회(1989) 등이 한국 도서기호법 사용과 발전과정 등을 연구하였다.

리재철(1985)은 컴퓨터에 의한 문헌검색이 발달되고 보급되어도 도서관의 이용자가 그 전부이든 제한된 일부이든 서가에 접근이 허용되고 필요한 한은 도서기호법의 필요성도 존속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박준식(1991)은 Sanborn 저자기호표의 특성과 장, 단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저자기호표를 구성하여 저자기호표의 자동검색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양숙(1995)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도서관기호법 사용현황을 관중별 도서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우리나라 도서관의 도서관기호법의 사용현황을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김성원(1997)은 학문의 발전 속도에 따른 최신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연대순 도서관기호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도서관기호법과 관련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도서관기호법 개발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에는 주로 발전과정 및 도서관기호법에 관한 소고나 주를 이루었고 1990년 중반 이후 도서관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도서관기호법 사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장서가 증가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의 경우, 현재의 도서관기호법은 도서관호의 중복문제와 장서의 효율적 관리, 타도서관과의 호환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도서관기호법 사용 실태를 기반으로 미래에도 충분한 도서관기호법으로의 수정이나 확장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연구의 설계 및 분석방법

#### 3.1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도서관기호법 사용 현황과 전문사서들의 현행 도서관기호

법에 대한 문제점과 고려사항 인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110개의 전국 대학도서관에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사서들에게 e-mail을 통하여 설문 협조 요청을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4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1주간에 걸쳐 On-Line 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1차 설문지를 배포한 110개 표본 중 38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지의 회수율이 34.5%로 낮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회신이 지연되는 표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e-mail과 개별적인 전화면담을 통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10부의 설문지를 응답받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8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전체적으로 43.63%가 되었다.

따라서 최종 48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도서관기호법 사용현황과 담당사서의 현행 도서관기호법과 관련한 문제점과 현행 도서관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관기호법으로 변경시 고려사항 인식정도를 분석하였다.

#### 3.2 표본선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 선정을 위하여 한국 문헌정보학 옐로우페이지(2004)를 모집단으로 전국의 대학도서관 도서관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하였다. 이에 해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학도서관의 정리업무나 분류/편목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의 e-mail을 수집하였다. 이에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중 전국의 110개 대학도서관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설문배포 및 회수 현황

배포수	회 수	회수율	분석불능	유효수	비 고
110부	48부	43.63%	-	48부	

본 연구의 조사방법을 위한 도구로는 일반적인 형태인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정리업무 중 분류와 편목을 담당하는 사서를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아울러 본 설문의 응답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문 문항의 설계는 명목척도(nominal scale)와 리커트(Likert)의 등간척도(interval scale)를 사용하였다.

이에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인식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를 최고 5점으로 배점하였다. 이에 반해, 해당항목의 인식의 정도에 따라 1점씩 차이를 두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를 최저 1점으로 배점하였다.

수집된 설문지에 대한 분석도구로는 SPSS for PC Ver.1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포함한 평균값(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를 이용하였다.

### 3. 3 설문지의 구성 및 측정척도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성별, 도서관 근무경력, 도서기호 담당 근무경력에 대해 각 1개 문항씩 3개 문항을 일반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도서관에서의 도서기호법 사용 현황과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및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고려사항에 대한 요소별 인식을 중심으로 18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핵심사항인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인식에 대한 요소별 문항으로는 현 도서기호법의 적절성 여부와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및 현행 도서기호법의 수정이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고려사항의 인식 요소를 중심으로 요소별 인식정도에 대하여 각 측정변수별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지의 항목 구성

측정항목	측정변수	문항수	문항번호	비 고
일반적 사항	성별	1	1	3문항
	도서관 근무경력	1	2	
	도서기호 담당경력	1	3	
도서기호법 사용현황 및 인식 요소	도서기호법 사용현황	1	4	18문항
	서가의 도서배열	1	5	
	도서기호법 수정여부	2	6-7	
	도서기호법 문제점인식	8	8-15	
	도서기호법 고려사항	6	16-21	

설문지의 측정척도는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항목과 현행 도서관호법의 현황과 관련된 항목은 명목척도(nominal scale)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핵심내용인 담당 사서의 현행 도서관호법에 대한 인식도 측정을 위한 모든 항목은 등간척도(interval scale)인 리커트(Likert)의 5점척도(five scale)을 사용하였다.

#### 4. 도서관호법 사용 현황과 결과 해석

##### 4.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48개의 표본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본 설문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여성 사서 31명(64.58%)과 남성 사서 17명(35.42%)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근무경력은 10년 이상

이 36명으로 전체 표본의 75%를 차지하였다.

도서관 담당 업무경력은 5년이상 10년 이하가 15명(31.25%)이고, 10년 이상이 18명(37.50%)으로 도서관 담당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사서가 전체 33명(68.75%)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근무경력과 도서관 담당업무 근무 경력을 비교해 볼 때, 많은 사서들은 도서관의 다른 업무로의 순환없이 전문적 업무분야로서 도서관 담당업무만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본 분포의 특성을 볼 때, 본 설문결과는 대학도서관에서의 현행 도서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사서들에 의해 현장 실무를 잘 반영하는 응답결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 4.2 도서관호법의 사용 현황

현재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

<표 3> 표본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측정변수	측정항목	표본		비고
		빈도	비율	
성 별	남	17	35.42	
	여	31	64.58	
	소 계	48	100.00	
도서관 근무경력	2년 이하	2	4.17	
	2년이상~5년이하	2	4.17	
	5년이상~10년이하	8	16.66	
	10년 이상	36	75.00	
	소 계	48	100.00	
도서관 담당 근무경력	2년 이하	5	10.42	
	2년이상~5년이하	10	20.83	
	5년이상~10년이하	15	31.25	
	10년 이상	18	37.50	
	소 계	48	100.00	



〈표 4〉 도서기호법 사용 현황

(단위 : 매/%)

측정변수	측정항목	표본		비 고
		빈도	비율	
동서 도서기호법	수입순 도서기호법	3	6.25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28	58.33	
	LC 저자기호표	1	2.09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	7	14.58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2	4.17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	1	2.09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	2	4.17	
	Elord 저자기호표	2	4.17	
	서울대 Cutter-Sanborn 수정본	2	4.17	
	소 계	48	100.00	
양서 도서기호법	LC 저자기호표	1	2.09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	47	97.91	
	소 계	48	100.00	

는 도서기호법은 〈표 4〉에서와 같이 동서용 9종과 양서용 2종으로 동서와 양서를 합하여 11종이 사용되고 있다.

동서용 저자기호법은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이 28개관(58.33%)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장일세 동양서저자기호표가 7개관(14.58%)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수입순 도서기호법이 3개관(6.25%)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국립중앙도서관 동양서저자기호표, Elord 저자기호표, 서울대 Cutter-Sanborn 수정전개표가 각각 2개관(4.17%)에서 사용되고, LC 저자기호표와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가 각각 1개관(2.09%)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서용 저자기호법은 Cutter-Sanborn 저자기호표가 표본대상의 대부분 대학도서관인 47개관(97.91%)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1개관에서만 LC 저자기호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표본 대학도서관은 LC 저자기호법

을 사용하고 있는 1개관을 제외하고 모두 동서와 양서의 도서기호법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의 서가 배열에 있어서는 동서와 양서를 혼합하여 배열하는 도서관이 21개관(43.75%)으로 나타났고, 동서와 양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배열하는 도서관이 27개관(56.2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상당수의 대학도서관은 동서와 양서를 서로 다른 도서기호법을 사용하여 정리하면서도 도서의 서가배열은 혼합배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우, 번역서나 전기서의 배열에 있어 저자의 관련저작물을 한곳에 모이도록 배열하는데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경험이 있는 대학도서관이 20개관(41.66%)으로 거의 절반에 이르렀으며, 지금까지 하나의 도서기호법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이 28개관(5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수정, 변경 회수가 1회인 도서관이 18개관(37.5%)으로 나타났고, 3회이상 수정, 변경한 도서관이 2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상당수의 대학도서관은 기존 도서기호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개별 대학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수정이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4. 3 도서기호법에 대한 사서의 인식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이 미래에도 적절하고 충분한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서가 15명(31.25%)으로 나타났고, 불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서가 33명(68.75%)으로 상당수의 전문사서들은 현행 도서기호법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행 도서기호법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서가 22명(45.83%)이었고, 새로운 기호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서가 11명(2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70%에 달하는 전문사서들은 현행 도서기호법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서기호법의 수정이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의 변경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대학도서관의 도서기호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기호의 중복이 33명(68.75%)으로 나타났고, 타도서관과의 호환성이 6명(12.50%), 효율적인 장서관리 4명(8.33%), 최신자료 구분 3명(6.25%), 도서기호법 자체문제가 2명(4.17%)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체계와의 일관성이 24명(50.00%)으로 나타났고, 도서기호의 중복해소가 15명(31.25%), 소급자료 정리가 5명(10.42%), 서가배열이 4명(8.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현행 도서기호법은 도서기호 중복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3. 1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인식 정도

이상과 같이 나타난 도서기호법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토대로 그 인식정도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기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사서들이 느끼고 있는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으로 파악되는 도서기호의 중복,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표 5〉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및 고려사항

(단위 : 매/%)

측정변수	측정항목	표 본		비 고
		우선순위	비 율	
현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도서기호 중복	33	68.75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2	4.17	
	최신자료 구분	3	6.25	
	효율적인 장서관리	4	8.33	
	타도서관과의 호환성	6	12.50	
	소 계	48	100.00	
수정/변경시 고려사항	도서기호 중복 해소	15	31.25	
	소급 자료 정리	5	10.42	
	서가 배열	4	8.33	
	기존체계와의 일관성	24	50.00	
	타도서관과의 호환성	-	-	
	소 계	48	100.00	

최신자료 구분, 효율적인 장서관리, 타도서관과의 호환성을 중심으로 문제점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본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기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사서들의 도서기호법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설문응답자의 개별적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도서기호법에 대한 문제점의 인식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와 관련된 설문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도서기호의 중복문

제와 관련한 문제점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는 설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서가 29명(60.42%)을 비롯하여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서가 16명(33.33%)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행 도서기호법 체계내에서 도서기호의 중복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서가 가장 많아 전체적인 평균값(mean)이 4.5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서기호법 자체와 관련된 문제점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설문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서가 20명(41.67%)을 비롯하여 “그저 그렇다” 14명(29.17%)으

〈표 6〉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인식 정도

(단위 : 매/%)

측정변수	측정내용	측정결과						
		1	2	3	4	5	M	Std
문제점	도서기호 중복	-	1(2.08)	2(4.17)	16(33.33)	29(60.42)	4.5208	.9749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1(2.08)	4(8.33)	14(29.17)	20(41.67)	9(18.75)	3.6666	.9658
	최신자료 구분	3(6.25)	3(6.25)	7(14.58)	21(43.75)	14(29.17)	3.8333	.9375
	효율적인 장서관리	1(2.08)	1(2.08)	5(10.42)	11(22.92)	30(62.5)	4.4196	.9639
	타도서관과 호환성	3(6.25)	8(16.67)	17(35.42)	12(25.00)	8(16.67)	3.2916	.9525
	계	8(3.33)	17(7.08)	45(18.75)	80(33.33)	90(37.50)	3.9458	.9702

로 현행 도서기호법 체계내에서 도서기호법 자체의 문제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으나 전체적인 평균값(mean)은 3.666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최신자료의 구분과 관련하여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설문에서는 “중요하다” 21명(43.75%)을 비롯하여 “매우 중요하다” 14명(29.17%)으로 현행 도서기호법 체계내에서 최신자료의 구분 문제 또한 “중요하다”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인 평균값(mean)은 3.833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장서관리와 관련하여 현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설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30명(62.5%)을 비롯하여 “중요하다” 11명(22.92%)으로 현 도서기호법 체계내에서 효율적인 장서관리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응답이 많아 전체적인 평균값(mean)은 4.4196로 도서기호 중복 문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도서관과의 호환성과 관련하여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설문에서는 “그저 그렇다” 17명(35.42%)을 비롯하여 “중요하다” 12명(25.00%)으로 현 도서기호법 체계내에서 타도서관과의 호환성 문제점은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많아 전체적인 평균값(mean)은 3.2916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대학도서관 도서기호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사서들은 현행 도서기호법의 사용에 따른 도서기호 중복, 도서기호법 자체문제, 최신자료 구분, 효율적인 장서관리, 타 도서

관과 호환성 등의 문제점들을 “중요하다” 80명(33.33%)과 “매우 중요하다” 90명(37.50%)으로 전체적으로 70.83%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심각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전체평균 역시 3.94583으로 나타나 현행 도서기호법 사용에 따른 이들 문제점들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 4. 3. 2 도서기호법 고려사항 인식도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사서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도서기호의 중복 해소, 소급자료 정리, 서가배열, 기존체계와의 일관성, 타도서관과의 호환성을 중심으로 고려사항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였다.

표본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현행 도서기호법의 수정이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설문응답자들의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개별적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으로서 도서기호법의 수정이나 변경에 대한 고려사항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와 관련된 설문이었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로서 “도서기호의 중복해소는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는 설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27명(56.25%)을 비롯하여 “중요하다” 15명(31.25%)으로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

〈표 7〉 도서관호법 수정시 고려사항 인식정도

(단위 : 명/%)

측정변수	측정내용	측정결과						
		1	2	3	4	5	M	St.d
고려사항	도서관호 중복해소	-	-	6(12.50)	15(31.25)	27(56.25)	4.4375	.9749
	소급자료 정리	2(4.17)	4(8.33)	9(18.75)	19(39.58)	14(29.17)	3.8125	.9651
	서가배열	-	1(2.08)	6(15.50)	16(33.33)	25(52.08)	4.3542	.9375
	기존체계와 일관성	1(2.08)	2(4.17)	3(6.25)	12(25.00)	30(62.50)	4.4166	.9739
	타도서관과 호환성	4(8.33)	10(20.83)	15(31.25)	14(29.17)	5(10.42)	3.1255	.9345
	계	7(2.92)	17(7.08)	39(16.25)	76(31.67)	101(42.08)	4.0292	.9634

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고려사항으로서 도서관호의 중복 해소에 대한 고려사항으로서의 인식 정도는 “매우 중요하다” 응답이 많아 전체적인 평균값(mean)은 4.4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급자료 정리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설문에서는 “중요하다” 19명(39.58%)을 비롯하여 “매우 중요하다” 14명(29.17%)으로 현행 도서관호법의 수정이나 새로운 도서관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고려사항으로 소급자료 정리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전체적인 평균값(mean)은 3.8125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가배열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설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25명(52.08%)을 비롯하여 “중요하다” 16명(33.33%)으로 현행 도서관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관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서가배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전체적인 평균값(mean)은 4.354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기존체계와의 일관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설문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30명(62.50%)을 비롯하여 “중요하다” 12명(25.00%)으로 현행 도서관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관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체계와의 일관성 유지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전체적인 평균값(mean)은 4.4166으로 도서관호 중복해소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도서관과의 호환성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설문에서는 “그저 그렇다” 15명(31.25%)을 비롯하여 “중요하다” 14명(29.17%)으로 현 도서관호법의 수정이나 새로운 도서관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타도서관과의 호환성을 고려하는 사서들의 인식 정도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많아 전체적인 평균값(mean)은 3.12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전문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현행 도서관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관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인식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위의 각 고려사항에 대한 항목들이 대부분 “중요하다” 76명(31.67%)과 “매우 중요하다” 101명(42.08%)으로 전체적으

로 73.75%가 도서기호 중복 해소, 소급자료 정리, 서가배열, 기존체계와의 일관성 유지, 타 도서관과의 호환성 등의 요소들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전체 평균 역시 4.0292로 나타나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고려사항으로 위의 항목들은 우선적으로 크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4 도서기호체계의 개선방안

도서기호는 분류기호와 구별되어 문헌의 서가 위치를 지정해 주는 독자적인 장치로서 문헌의 기본기입요소 즉, 저자, 서명, 출판연 등을 포괄하는 문헌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행 도서기호 정의에서 한 단계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도서기호의 미래지향적 조작적 정의이다.

아울러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현행 도서기호법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도서기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도서기호체계는 저자기호와 서명의 첫글짜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기호체계는 도서기호의 중복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특정 도서의 경우에 도서기호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확장된 도서기호의 개념으로 적용하여 도서기호를 구성하면 저자기호와 서명기호를 함께 부여하고 형태사항의 출판연을 함께 병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도서기호체계를 확장할 경우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도서기호의 중복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동일한 주제하에서 동일저자의 저작을 한곳에 집중시켜줄 뿐 아니라 동일저자의 저작을 서명순으로 배치시키면서 자료의 시대적 추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학도서관의 도서기호 관련 업무 전문사서가 인식하고 있는 현행 도서기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기호의 중복과 장서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었다. 아울러 현행 도서기호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고려사항으로 도서기호 중복해소와 기존 도서기호 체계와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확장된 도서기호 개념을 적용하여 도서기호체계를 개선한다면 사서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도서기호의 중복문제와 장서의 효율적인 장서관리가 함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존 도서기호 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자기호 뒤에 서명기호를 조합함으로써 기존 도서기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가 배열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출판연을 함께 병기함으로써 관련 자료의 시대적 추이를 함께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자료이용 효율성과 대학도서관의 장서관리의 효율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게 된다.

## 5. 결론 및 제언

현재 대학도서관은 문헌의 정리에 사용되는 도서기호법이 동서와 양서를 모두 합하여 11종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KORMARC 표준 포맷을 사용하여 전국대학도서관이 공동목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히 의아한 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기호는 분류기호와 구별되어 문헌의 서가 위치를 지정해주는 독자적인 장치로서 문헌의 기본기입요소 즉, 저자, 서명, 출판연 등을 포괄하는 문헌 속성의 조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대학도서관의 도서기호법 사용현황과 담당사서들의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고려사항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도서기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서기호 중복이며,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도 도서기호의 중복 해소에 있다고 전문사서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현행 도서기호법에 대한 전문사서들의 문제점 인식정도는 도서기호의 중복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효율적인 장서관리와 최신자료의 구분 순으로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도서기호의 중복 해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기존 도서기호체계와의 일관성과 서가배열 순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현행 도서기호법의 문제점 인식과 현행 도서기호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서기호법으로 변경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타 도서관과의 호환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11종의 다양한 도서기호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문사서들의 도서기호표준화 필요성 인식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종합하면 도서기호는 문헌의 서가 위치를 지정해주는 독자적인 장치로서 이용자 측면에서 효율적인 자료 이용을 지원하고, 도서관 측면에서 효율적인 장서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도서기호법이 안고 있는 도서기호 중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존 도서기호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최신 자료 구분이 가능하도록 도서기호 체계를 확장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확장된 도서기호의 개념을 적용하여 저자기호와 서명기호를 함께 부여하고 형태사항의 출판연을 함께 병기하는 방법으로 도서기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분류와 편목업무와 마찬가지로 대학도서관 간 정보공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일 체계로서의 도서기호 표준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金南碩. 1988. 『圖書記號』.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김성원. 1997.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31(2): 79-93.
- 김치우. 1987. 資料組織의 效率性 考察: 特別히 圖書記號를 中心으로. 『부산여대는 문집』, 24: 207-224
- 리재철. 1970. 구조론에 입각한 한국 저자기호 표의 연구: 한글의 구조상의 특색, 기입의 형식, 배열, 표기법 문제 등과 관련한 고찰. 『圖書館學』, 1: 1-57.
- 리재철. 1971. 저자기호법에 있어서 한글의 기호 삼기 문제에 대하여. 『人文科學』, 24: 221-245.
- 리재철. 1972. 한글, 숫자 기호법의 도서기호로서의 문제점: 張一世氏의 논박에 대한 반박. 『人文科學』, 27: 183-212
- 리재철. 1985. 새 연대순 도서기호법의 연구. 『圖書館學』, 12: 7-37.
- 박준식. 1991. 『英美 著者記號法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사공철 외. 1996.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李丙洙. 1968. 圖書記號의 여러 가지 방법(I). 『국회도서관보』, 5(10): 13-28.
- \_\_\_\_\_. 1969. 圖書記號의 여러 가지 방법(2). 『국회도서관보』, 6(1): 19-28.
- 이양숙. 1995.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문헌정보학회』, 28(29): 23-70.
- 장일세. 1971. 우리 나라에 있어서 저자기호표에 관한 연구. 『圖書館學』, 2: 1-45.
- 정필모. 1972. 韓國文獻記號法 研究: 現行列舉式 著者記號法에 대한 代案. 『국회도서관보』, 9(5): 5-62.
- ALA. 1921. *A Survey of Libraries of United States*. Chicago: ALA.
- Barden, Bertha R. 1937. *Book Numbers: a Manual for Students with a Basic Code of Rules*. Chicago: ALA.
- Bliss, Henry Evelyn. 1910. "Simplified Book - Notation". *Library Journal*, 35: 544-564.
- Comaromi, John P. 1981. *Book numbers: a historical study and practical guide to their use*.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Denton, William. 2003. "Book numbers". [cited 2004. 11. 5]. <<http://www.miskatonic.org/library/book-numbers.html>>
- Lehnus, Donald J. 1980. *Book unmbers: history, principles, and application*.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Mann, 1943. *Margaret. Introduction to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of Books*, 2nd ed. Chicago: ALA.
- Ranganathan, S. R. 1957.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2nd ed. London: Library Association.



Ranganathan, S. R. 1964. *Colon Classification*. 6th ed. Bombay: Asia Pub. House.

Satija, Mohinder partap and John Pl. Comaromi. 1992. *Beyond Classification: book numbers with special*

*reference to chronological book number*. New Delhi: Ess.

Young, Heartsill. 1983.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